

#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정선현 · 이희영<sup>†</sup>  
(좌동초등학교 · <sup>†</sup> 부경대학교)

## Influence of Mother and Peer Attachment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f Children

Sun-Hyun JUNG · Hee-Yeong LEE<sup>†</sup>  
(Jwadong Elementary School · <sup>†</sup>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mother and peer attachment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f children.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First, what is the influence of mother and peer attachment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f children? Second, does the influence of mother and peer attachment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f children differ according to sex? Third, what is the relative influence of mother and peer attachment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f children? 485 fifth graders(male, 184; female, 163) from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Busa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complet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Scal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imple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oth mother and peer attachment influenced on compromising and integration, avoiding and obliging strategies although the degree of influence were different. Second, the influence of mother and peer attachment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differ according to gender. Third, the influence of peer attachment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were greater than the one of mother attachment.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with comments on limit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 Mot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Children*

### I. 서론

아이들은 성장함에 따라 가족 밖의 또래들과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대부분의 아동들은 또래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또래들 중 한 명, 또는 몇 명과 친구 관계를 형성한다.

친구관계는 다른 유형의 또래 관계와는 달리 자발적인 호혜 관계로 아동의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McDevitt & Ormrod, 2007).

친구관계는 아동에게 사회적 유능감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Vaughn, Azria, Krzysik, Caya, Newell, Kazura(2000)에 의하면, 친구 관계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495, hylee@pknu.ac.kr

를 더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사회적 유능감이 더 높다고 한다. 친구가 있는 아동은 친구가 없는 아동보다 자기 확신 수준이 더 높고 학업 수행도 더 잘 한다(Ladd, 1999). 또한 친구관계는 아동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정서적 완충기능을 하고(Wasserstein & LaGreca, 1996),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Shaffer, 2000).

반면에 친구가 없는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업적으로 고통을 더 경험하고 학교에 대해서도 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Ladd, 1990), 청소년 비행, 학교중도탈락, 정신의학적 문제와 자살의 가능성이 높고, 성인이 되었을 때 정신질환, 심장병, 고혈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Lawhon, 1997).

이처럼 친구관계는 아동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친구관계의 중요성은 아동 후기에 극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Sullivan, 1953). 이렇게 볼 때 원만한 친구관계의 형성과 유지는 본 연구의 대상인 후기 아동기의 매우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하여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변인은 갈등이다. 아동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친구관계의 유지와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Fronzi, Schneider, Tani, & Tomada, 1997). 친구관계에서 갈등이 중요한 이유는 친구관계는 가족관계와는 달리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계 자체가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친구관계의 성공 여부는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가 다시 말하면 어떠한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는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다.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현상은 교우간의 갈등을 그 시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의 경우 또래집

단 구성원간의 갈등 상황을 공격적이고 신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부정적 갈등해결 방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아동들이 사용하는 부정적인 갈등해결방식은 개인적 부적응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나아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이은채, 2005).

갈등이란 대인관계에서 목표, 기대 혹은 상대방에 대한 바람의 불일치로 빚어지는 상호간의 대립(Collins, Lauresn, & Mortensen, 1997), 혹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사람이 다양한 친사회적·반사회적 전략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Malloy & McMurray, 1996)으로 전통적으로 갈등은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사회화의 실패의 신호로써 인식되어 왔다(Shantz & Hobart, 1989). 그러나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갈등에는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도 있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갈등을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의 변화의 원동력 및 발달의 필수적인 자극으로 보고, 갈등상황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인지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이 대두됨에 따라 갈등의 제거보다는 하나의 사회적 기술로써 대인간에 발생하는 갈등양상과 다양한 갈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루고 관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김혜련, 2003).

갈등해결전략은 그동안 Deutsch(1973)의 협력과 경쟁의 2유형, Alexander(2000)의 공격형, 협력형, 회피형의 3유형, Sternberg와 Dobson(1987)의 능동적 갈등완화, 수동적 갈등완화, 능동적 갈등격화, 수동적 갈등격화의 4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Kilmann과 Thomas(1974)에 의해 처음 분류되었다가 이후 Rahim(1983)에 의해 수정된 5유형 즉 협력(integration), 절충(compromising), 회피(avoiding), 양보(obliging), 지배(dominance) 전략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들 전략은 개인이 갈등상황을 다루는데 있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와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

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각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협력형'은 양측의 의견을 공동선의 입장에서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양측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켜 줌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려는 유형이고, '절충형'은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 양측이 상호교환과 희생을 통해 부분적으로 만족을 취함으로써 갈등을 관리하는 유형이며, '양보형'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심사는 버려두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상대방의 주장에 따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고, '지배형'은 경쟁적 관계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압도해 버림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며, '회피형'은 갈등문제로부터 물러나가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마저 무시하는 유형이다(Rahim & Magner, 1995). 여기서 '절충형'과 '협력형'은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와 같은 비형식적이고 친근한 사이에서는 덜 분화된다(Hammock, Richardson, Pikngton & Utley, 1990)는 이유로 종종 하나로 묶어서 분류된다.

갈등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이 경험한 내적·외적 자원들을 통합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형태의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개인이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에는 문화성향(김은진, 2008), 완벽주의성향(이희영·오현주, 2007), 자기조절능력(김향순, 2006), 자아탄력성(김민아, 2005; 장영수, 2008), 자기통제(현지원, 2008), 정서지능(하지원·김광웅, 2005), 조망수용능력(박옥철, 2004), 부모양육태도(이희영·천태복, 2005), 형제관계(박미진·김광웅, 2002), 친구관계의 질(김송이, 2006)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애착이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자들(예, 김나리, 2002)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애착은 개인이 생의 초기에 자신을 돌보아 주는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로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Bowlby, 1982). 애착 이론의 기본 가정 중의 하나는 개인

이 타인과 맺는 애착 관계의 질에는 개인차가 있고 이러한 개인차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개인이 보이는 다양한 행동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애착과 갈등해결 방식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김나리, 2002; 김미나, 2008; 김지현, 2002; 사공미숙, 2006; 안자경, 2008; 윤선모, 2010; 이정희, 2007; 정선영·김진영, 2008; 황주혜·유순화, 2006; Bippus & Rollin, 2003; Cann, Norman, Welbourne & Welbourne, 2008; Corccoran & Mallinckrodt, 2000; Shi, 2003)가 수행되었고, 연구 결과는 대체로 갈등해결방식이 애착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Cann, Norman, Welbourne과 Calhoun(200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갈등해결전략이 애착 유형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사공미숙, 2006)의 연구에서도 갈등해결전략은 대학생이 부모와 형성한 애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착과 갈등해결전략간의 관계를 검토한 국내외의 연구 결과는 대체로 애착 이론의 기본 가정과 일치하게 이들 두 변인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분야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애착과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애착 이론에 의하면 애착 관계의 영향력은 특정 발달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평생을 통해 지속된다(Ainsworth, 1989). 따라서 애착과 갈등해결전략간의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했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분야의 선행연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또래에 대한 애착을 등한시하였다. 애착 관련 연구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추세 중의 하나는 애착의 주 대상인 어머니 이외의 다른 애착 대상의 역할을 밝히는 것

이다.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애착의 대상 또한 부모에서 교사, 친구 등으로 확장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아동 후기는 특히 친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아동의 애착에 대한 연구에서는 애착의 주 대상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친구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동의 애착과 갈등해결전략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또래 애착을 검토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셋째, 애착과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이들 변인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지 않았다.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여자 아이에게 더 영향력이 있는 반면 친구에 대한 애착은 남자 아이에게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이상훈(2005)의 연구는 이러한 가정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 준다. 이들은 초등학교 5, 6학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 및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부모애착은 남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영역 중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에는 영향력이 없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모든 하위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고, 또래애착의 경우는 부모애착과 달리 남학생의 경우는 모든 하위 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애착과 갈등해결전략간의 관계에 있어 성별의 영향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애착과 갈등해결전략간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대부분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만을 다루거나 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도 이들 애착 대상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토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갈등해결전략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에서 나타난 상기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어머니 애착과 또래 애착이 초등학교 5

학년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갈등과 관련된 상담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각각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별에 의해 달라지는가?
3.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5학년을 표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친구와의 갈등이 아동 중기 이후에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결과(Hartup, French, Laursen, Johnson, & Ogawa, 1993)에 기초하였다. 더불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에서의 또래지위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자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서 학년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한혜원(2003)의 연구결과 또한 고려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초등학교 4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5학년 15학급을 대상으로 48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435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와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의 응답 자료는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347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남아가 184명(53.0%), 여아가 163명(47.0%)이었다.

### 2. 측정도구

- 가. 모애착 및 또래애착 척도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를 옥정(1998)이 번안하여 25문항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IPPA-R은 부애착, 모애착, 또래애착 척도로 분리시켜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모애착과 또래애착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 형식은 Likert 방식의 4점 척도로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신뢰도 분석 결과 모애착 척도의 2개 문항(8번, 14번)과 또래애착 척도의 1개 문항(9번)의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와 제외하고 모애착(23문항)과 또래애착(24문항)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얻은 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신뢰도는 각각 .91, .92로 나타났다.

#### 나. 갈등해결전략 척도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은혜, 고윤주와 오원정(2000)이 개발하고 배선영과 이은혜(2001)가 초등학교 5학년 아동에게 적절하도록 문항내용을 수정한 척도를 이 척도는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취하는 4가지 전략(절충 및 협력, 회피, 양보, 지배)에 대하여 각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신뢰도 분석 결과 회피전략 중 13번 문항의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와 제외하고 3문항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한 하위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절충 및 협력(.76), 회피(.66), 양보(.65), 지배(.60)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실제 조사를 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검사소요시간, 아동의 문항 이해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재의 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 51명을 대

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기초로 갈등해결전략 내용의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자가 각 학교 검사자에 해당하는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얻었다. 담임교사의 주도하에 수업시간에 조사가 실시되었고, 질문지에 응답하기 전에 유의사항을 학생에게 설명하였다. 응답시간은 약 40분이 소요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ver. 18.0)을 활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갈등해결전략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남녀 아동간의 평균차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점수분포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1.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모애착 및 또래애착 점수와 갈등해결전략 점수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는 한편, 모애착, 또래애착 각각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갈등해결전략 하위요인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별에 의해 중재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 하위집단을 구분한 후 모애착과 또래애착과의 상관 및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모애착, 또래애착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갈등해결전략 각 하위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예비분석 결과: 독립 및 종속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

연구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모애착과 또래애착 그리고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산출함으로써 점수분포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모애착과 또래애착(독립변인)이 갈등해결전략(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성의 중재영향에도 관심을 가졌으므로 남녀 아동간의 평균점수에서의 차이검증 또한 함께 실시하였다. 먼저 <표 1>은 남녀 아동의 모애착 및 또래애착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평균차 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성별에 따른 모애착과 또래애착의 기술 통계량

구분	남아(N=184)		여아(N=163)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애착	75.64	9.26	76.07	11.99	.37
또래애착	67.37	12.73	72.02	14.04	3.24**

\*\* $p < .01$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애착 점수에서 남아는  $M=75.64$ , 여아는  $M=76.07$ 을 나타내었다. 이는 모애착 척도가 갖는 점수 범위(23~92점) 및 절대평균( $M=57.5$ )에 비추어 남녀 아동 모두 평균적으로 모와 비교적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녀 아동간에 모애착 평균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t=.37, p > .05$ ).

또래애착 평균점수에서는 남아의 경우  $M=67.37$ , 여아의 경우  $M=72.02$ 를 나타내어 척도점수의 범위(24~96점) 및 절대평균( $M=60.0$ )에 비추어 조금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특히 남아와 여아 간에는 평균점수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t=3.24, p < .001$ ) 이는 남아에 비하여 여아들이 보다 높은 또래애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2> 성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기술통계량

하위요인	남아(N=184)		여아(N=163)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절충 및 협력	2.86	.64	3.14	.58	4.13***
회피	2.96	.69	3.15	.59	2.76**
지배	2.40	.60	2.36	.58	.64
양보	2.62	.58	2.76	.59	2.32*

\* $p < .05$  \*\* $p < .01$  \*\*\* $p < .001$

계속해서 <표 2>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하위요인별 기술통계량 및 남녀 아동간 평균차 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2>에 제시된 갈등해결전략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우선 갈등해결전략 점수의 범위(1~4점) 및 절대평균( $M=2.5$ )에 비추어 경향을 살펴보면, 비록 남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절충 및 협력전략과 회피전략은 평균보다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지배전략과 양보전략은 평균보다 조금 낮거나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남녀 아동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남아의 경우 회피전략( $M=2.96$ ) - 절충 및 협력전략( $M=2.86$ ) - 양보전략( $M=2.62$ ) - 지배전략( $M=2.40$ )의 순서로 점수 순위를 나타내었으며,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 간에는 .56점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반면, 여아의 경우 회피전략( $M=3.15$ ) - 절충 및 협력전략( $M=3.14$ ) - 양보전략( $M=2.76$ ) - 지배전략( $M=2.36$ )의 순서를 나타내어 점수 순위에서는 남아와 동일하였으나,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 간에는 .61점의 차이를 보여주어 상대적으로 보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차 검증결과에서는 절충 및 협력전략( $t=4.13, p < .001$ )과 회피전략( $t=2.76, p < .01$ ), 양보전략( $t=2.32, p < .05$ )에서는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하여 모두 통계적으로 높은 평균점수 경향을 보여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남

너 아동 간에는 또래애착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표 1>) 아니라 갈등해결전략 또한 차이(<표 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모애착 및 또래애착 점수와 갈등해결전략 점수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는 한편, 모애착과 또래애착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하고 갈등해결 전략 하위요인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적률상관계수를, 그리고 <표 4>은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갈등해결전략과의 상관

	절충 및 협력전략	회피전략	지배전략	양보전략
전체 모애착	.35***	.27***	.10	.13*
전체 또래애착	.65***	.32***	.01	.24***

<표 4> 모애착과 또래애착의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B	beta	R	R <sup>2</sup>	F
모애착	절충 및 협력	.021	.354	.35	.125	49.46***
	회피	.016	.265	.27	.070	26.14***
	양보	.007	.130	.13	.017	5.93*
또래애착	절충 및 협력	.030	.652	.65	.425	254.93***
	회피	.015	.318	.31	.101	38.69***
	지배	.004	.101	.10	.01	3.54
	양보	.011	.244	.24	.060	21.92***

\* $p < .05$  \*\*\* $p < .001$

<표 3>을 살펴보면 모애착의 경우 갈등해결전략 유형에 따라  $r = .10 \sim .35$  범위의 정적상관, 그

리고 또래애착은 유형에 따라  $r = .01 \sim .65$ 의 정적상관을 보임으로써 모애착과 또래애착 모두 갈등해결전략 유형에 따라 상이한 정도의 상관의 크기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를 보면 모애착의 경우, 아동의 절충 및 협력전략에 12.5%의 영향을 미치며, 회피전략에는 7.0%의 영향을, 그리고 양보전략에는 1.7%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애착 여부는 무엇보다 아동의 절충 및 협력전략의 사용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래애착 역시 아동의 절충 및 협력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절충 및 협력전략의 42.5%를 설명함으로써 회피전략(10.1%), 양보전략(6.0%)에 미치는 영향을 훨씬 상회하였다.

한편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모애착과 또래애착 모두 아동의 지배전략에는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도 보여주지 않았다. 요컨대 모애착 및 또래애착 모두 대체로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아동의 절충 및 협력전략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 3.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중재

성별에 따라 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앞선 <표 3>의 모애착과 또래애착과의 상관 및 <표 4>의 단순회귀분석결과를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재분석한 결과는 <표 5> 및 <표 6>과 같다.

<표 5>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갈등해결전략과의 상관관계 정도는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모애착과 회피전략 간에는  $r = .37$ 의 상관을, 모애착과 양보전략 간에는  $r = .26$ 의 상관을 보였으나, 여아의 경우 각각  $r = .17$ ,  $r = .0$ 의 보다 낮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또래애착과 갈등해결전략과의 상관에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 비록 또래애착과 절충 및 협력전략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나, 남아( $r=.59$ )에 비하여 여아( $r=.70$ )에게서 보다 높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표 5> 남녀 아동별 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갈등해결전략과의 상호상관

	절충 및 협력전략	회피전략	지배전략	양보전략
남 모애착	.35***	.37**	.06	.26***
남 또래애착	.59***	.29***	.18*	.24***
여 모애착	.38***	.17*	-.07	.02
여 또래애착	.70***	.31***	.03	.22**

\* $p<.05$  \*\* $p<.01$  \*\*\* $p<.001$

이러한 결과는 <표 6>의 단순회귀분석결과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남아의 경우 모애착은 회피전략에 13.7%의 영향을, 양보전략에는 6.7%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의 경우 모애착은 회피전략에만 2.9%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또래애착에서는 남아의 경우 또래애착이 절충 및 회피전략에

34.7%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의 경우 훨씬 더 높은 49.6%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아동간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모애착이 회피전략에 미치는 영향과 또래애착이 절충 및 협력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4.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모애착과 또래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갈등해결전략 각 하위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우선 <표 7>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갈등해결전략 유형에 따라서 모애착 혹은 또래애착이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 상당히 다르며, 갈등해결 유형에 따라 1%~41.3%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해결전략 유형별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절충 및 협력전략의

<표 6> 남녀 아동별 모애착과 또래애착의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집단	집단	종속변인	B	beta	R	R <sup>2</sup>	F
남아	모애착	절충 및 협력	.025	.353	.35	.125	25.94***
		회피	.028	.370	.37	.137	28.82***
		양보	.016	.260	.26	.067	13.15***
	또래애착	절충 및 협력	.030	.589	.58	.347	96.58***
		회피	.016	.294	.29	.086	17.19***
		지배	.009	.184	.18	.034	6.40*
여아	모애착	절충 및 협력	.018	.376	.37	.141	26.42***
		회피	.008	.170	.17	.029	4.81*
		절충 및 협력	.029	.704	.70	.496	158.34***
	또래애착	회피	.013	.313	.31	.098	17.49***
		지배	.009	.216	.21	.047	7.91**
		양보	.009	.216	.21	.047	7.91**

\* $p<.05$  \*\* $p<.01$  \*\*\* $p<.001$

<표 7> 모애착과 또래애착의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투입변인	B	beta	R	R <sup>2</sup>	R <sup>2</sup> 변화	F변화량
절충·협력	또래애착	.030	.642	.64	.413	.413	261.38***
회피	또래애착	.014	.293	.29	.086	.086	34.90***
	모애착	.008	.134	.32	.101	.015	6.14*
지배	또래애착	.004	.100	.10	.010	.010	3.75
양보	또래애착	.011	.238	.24	.056	.056	22.25***
	모애착	-.001	-.016	.24	.057	.052	.09

\* $p < .05$  \*\* $p < .01$  \*\*\* $p < .001$

경우 또래애착이 41.3%의 영향력을 보일뿐 모애착은 영향 변인으로 투입조차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피전략의 경우 또래애착이 8.6%, 모애착이 1.5%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셋째, 지배전략의 경우 모애착, 또래애착 모두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나지 못하였으며, 넷째 양보전략에는 또래애착이 5.6%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모애착보다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절충 및 협력전략의 사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아동이 갈등 상황에서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모애착 및 또래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아래에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학령 후기 아동이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사용하는 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애착은 갈등해결전략의 4가지 유형 중 지배 전략을 제외한 3가지 유형 즉 절충 및 협력 전략, 회피 전략, 양보 전략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어머니와 맺은 애착 관계가 학령 후기 아동이 갈등 상황에서 사용하는 해결방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모애착과 갈등해결전략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한 몇몇 선행연구(김지현, 2002; 윤선모, 2010; 이정희, 2007; 황주혜·유순화, 2006) 결과가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모애착과 갈등해결전략간의 관계 양상이 연구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모애착이 지배 전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정희(2007)의 연구에서는 회피 전략에, 김지현(2002)의 연구에서는 회피 전략과 양보 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윤선모의 연구에서는 모애착이 영향을 주는 갈등해결전략은 회피 전략에만 국한되었다.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모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 대상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또래에 대한 애착이 학령 후기 아동의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애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배 전략을 제외한 절충 및 협력 전략, 회피 전략, 양보 전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아동 후기의 시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은채(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령 후기 아동이 또래와 맺는 애착 관계는 이들의 갈등해결전략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모애착과 또래애착 모두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향의 구체적인 양상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모애착은 절충 및 협력 전략, 회피 전략 및 양보 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갈등해결전략을 32.9% 설명하였으나, 여아의 경우는 절충 및 협력 전략과 회피전략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영향력도 17%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또래애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또래애착은 4가지 갈등해결전략 모두에 영향을 준 반면 여아의 경우는 절충 및 협력 전략, 회피 전략, 양보 전략에만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애착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여성의 심리적 발달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Gilligan, 1982; Josselson, 1988; Surrey, 1991)의 견해와 이를 기초로 수행된 여러 연구 결과(예, Kalsner & Pistole, 2003; Kenny & Donaldson, 1992; Rice & Whaley, 1994)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의 이유는 연구대상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인간발달에 있어 애착의 역할은 발달단계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발달에 있어 애착의 역할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중요해 지는 것은 청소년기 이후부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발달단계와 성별에 따른 애착 관계의 상대적 중요성을 밝히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셋째,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갈등해결전략 선택에는 또래애착이 모애착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친구관계의 중요성은 아동 후기에 극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기 때문(Sullivan, 1953)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론적 해석에 대한 지지적 정보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및 또래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몇몇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상훈(2005)은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교우관계적응에 있어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한 결과 또래애착이 더 영향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비슷한 연구로 최문정(2006) 또한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래애착, 모애착, 부애착의 순서로 친구 적응에 영향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결과는 연구자의 추론을 간접적으로 지지할 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현재까지 아동의 갈등해결전략과 관련하여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영향력을 비교 검토한 선행연구를 발견할 수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보다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연구 설계상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고 이 분야의 후속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부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이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만을 사용했다. 모애착과 또래애착 및 갈등해결전략을 자기보고식이 아닌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상기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과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를 다루었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뿐만 아니라 또래에 대한 애착을 포함하였으며, 애착과 갈등해결전략간의 관계를 조사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였고,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있어 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나리(200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나(2008). 성인애착과 Sternberg의 사랑유형에 따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아(2005).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 자아탄력성과 친구간 갈등 해결 전략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송이(2006). 학령기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방식 및 종결방식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7(4), 265~278.
- 김지현(200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2008). 초등학생의 문화성향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순(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련(2003). 심리극 기법을 이용한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진 · 김광웅(2002). 형제의 지위변인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아동연구 15(2), 79~105.
- 박옥철(2004). 초등학생의 사회적 조망수용능력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관계 연구, 초등교육학연구 11(1), 81~107.
- 배선영 · 이은혜(2001). 아동의 친구관계 질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생활과학논집 15, 80~88.
- 사공미숙(2006). 대학생의 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자경(2008). 성인의 애착과 갈등해결전략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 정(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선모(2010).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과 의사소통유형이 친구와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훈(2005). 부모 및 또래애착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 고윤주 · 오원정(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해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105~121.
- 이은채(2005). 아동의 갈등해결전략과 또래 애착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07). 부모애착과 친구관계의 질에 따른 아동의 갈등해결전략,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영 · 오현주(2007). 중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부모양육태도 및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19(2), 301~309.
- 이희영 · 천태복(2005). 학년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 갈등해결전략, 수산해양교육연구 17(2), 228~239.
- 장영수(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자아탄력성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선영 · 김진영(2008). 대학생 애착유형이 대인관계의 갈등해결 양상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9(1), 1~22.
- 최문정(2006). 아동의 부, 모, 또래 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지원 · 김광웅(2005).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및 정서조절능력이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동연구 18(1), 13~32.
- 한혜원(2003). 아동의 정서표현 의도와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지원(2008).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아동의 자기통제 및 또래갈등지각이 또래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주혜 · 유순화(2006). 청소년의 애착관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분석, 교육연구 16, 93~115.
- Ainsworth, M. D. S.(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lexander, K. L. (2000). *Prosocial behavior of adolescence in work and family life: Empath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with parents and peers*.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ippus, A. M., & Rollin, E. (2003). Attachment style differences in relational maintenance and conflict behaviors: Friends' perceptions, *Communication Reports*, 16(2), 113~123.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2nd ed.) New York: Basic Books.
- Cann, A., Norman, M. S., Welourne, J. L., Calhoun, L. G. (2008). Attachment styles, conflict styles and humour styles: Interrelationships and associations with relationship satisfac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2, 131~146.
- Collins, W. A., Laursen, B., & Mortensen, N. (1997). Conflict process and transitions in parent and peer relationship: Implications for autonomy and regul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2), 178~198.
- Corcoran, K. O., & Mallinckrodt, B. (2000). Adult attachment, self-efficacy, perspective t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 473~483.
- Deutsch, M. (1973). A theory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Human Relations*, 2, 129~151.
- Fronzi, A., Schneider, B. H., Tani, F., & Tomada, G. (1997). Predicting children's friendship status from their dynamic interaction in structural situation of potential conflict, *Child Development*, 68(3), 496~506.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mmock, G. S., Richardson, D. R., Pilkington, C. J., & Utley, M. (1990). Measurement of conflict in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577~583.
- Hartup, W. W., French, D. C., Laursen, B., Johnson, M. K., & Ogawa, J. R. (1993). Conflict and friendship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Behavior in a closed-field situation, *Child Development*, 64, 445~454.
- Josselson, R. (1988). The embedded self: I and thou revisited. In D. K. Lapsley & F. C. Power (Ed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pp. 91~108), New York: Springer.
- Kalsner, L., & Pistole, M. C. (2003). College adjustment in a multiethnic sample: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ethnic identit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4, 92~109.
- Kenny, M. E., & Donaldson, G. A. (1992).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to the adjustment of first-year college wo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 431~438.
- Kilmann, R. H., & Thomas, K. W. (1974). Developing a forced-choice measure of conflict-handling behavior: The "MODE" instrument.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7, 309~325.
- Ladd, G. W. (1990).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classroom: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1, 1081~1100.
- Ladd, G. W. (1999).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during early and middle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333~359.
- Lawhon, T. (1997, Summer). Encouraging friendships among children, *Childhood Education*, 73, 228~231.
- Malloy, H. L., & McMurray, P. (1996). Conflict strategies and resolutions: Peer conflict in an integrated early childhood classroom,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185~206.
- McDevitt T. M., Ormrod, J. E. (2007).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3rd ed.), Upper Saddle River, Prentice-Hall.
- Rahim, M. A. (1983).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 368~376.
- Rahim, M. A., & Magner, N. R. (199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First-order factor model and its invariance across group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 122~132.

- Rice, K. G., & Whaley, T. J. (1994).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within-semester adjustm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5, 324~330.
-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Belmont, CA Wadsworth.
- Shantz, C. U., & Hobart, C. J. (1989). Social conflict and development: Peers and siblings. In T. J.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 71~94), New York: Wiley.
- Shi, L. (2003).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conflict resolu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1, 143~157.
- Sternberg, R. J., & Dobson, D. M. (1987). Resolving interpersonal conflicts: An analysis of stylistic consist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794~812.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Norton.
- Surrey, J. L. (1991). The "self-in-relation": A theory of women's development. In J. V. Jordon, A. G. Kaplan, J.B. Miller, I.P. Stiver, & J.L. Surrey, (Eds.) *Women's growth in connection* (pp. 51~66), New York: Guilford Press.
- Vaughn, B. E., Azria, M. R., Krzysik, L, Caya, L. R, Newell, W., Kazura, K. L. (2000). Friendship and social competence in a sample of preschool children attending Head Start,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26~338.
- Wasserstein, S. B., & LaGreca, A. M. (1996). Can peer support buffer against behavioral consequences of parental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5, 177~182.
- 
- 논문접수일 : 2012년 09월 22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2년 10월 08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10월 10일